대학입시후 경계해야 할 5 가지 사기

대학입시가 끝나면 학부모와 수험생 모두 긴장을 풀고 탕개를 늦추게 된다. 이 틈을 노리고 일부 사기군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사기극을 벌리고 있기에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기 1: 사전 점수 조회

사기군들은 학부모들이 애타게 점수를 기다리는 심정을 악용해 대학입시가 끝난 후 가짜 기지국을 통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는 문자와 인터넷 링크를 단체 문자로 보낸다. 수험생들은 이런 류형의 문자를 받은 후 지체없이 링크를 열어보는데 이때 휴대폰에 인터넷은행을 해킹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다. 인터넷은 수험생들이 신분증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은행구좌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이런 정보를 기록해 팔고 이런 정보에 근거해 전신사기를 친다.

◆사기 2: 대학입시 성적 돈 주고 수정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을 통해 '해킹'으로 입학할 수 있는 이른바 '고수'를 알게 되는데 이런 사기군들은 성적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 고가의 '봉사비용'을 요구한다.

◆사기 3: 지원 선택 100% 입학

범죄자들은 내부 빅데이터를 장악하여 '정확한 학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위 지원 선택 전문가를 사칭하여 '100% 입학 보장', '1점도 랑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사기군들은 '지원 선택 지도' 앱과 수험생 '1:1' 봉사 명의를 가장해 고가의 비용을 받은 후 잠적한다.

◆사기 4: 추가입학, '내부지표' 제공

범죄자들은 학부모에게 일부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돈을 내면 추가입학 정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의 돈을 갈취한다. 일부 사기군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속여 '내부지표', '계획되지 않은 지표'를 구할 수 있다고 속인다.

◆사기 5: 국가장학금 지급

사기군들은 일부 수험생의 경제적 어려움, 대학교 장학금으로 입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경우를 악리용한다. 대학교 직원, 교육부 직원을 사칭하여 손에 대상(项目)이 있다면서 수험생이 대학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먼저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내지만 나중에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인민넷

연길, 50 여명 '법률지식인'과 혼인조정골간 양성

▲ 모의법정은 '리혼분쟁'사건으로 전개되였는데 사건 법정심리중의 법정조사, 법정변론, 법정판결의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환원시켰다.

▲ 수강생들이 연길시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검찰작업구역과 12309 검찰봉사중심을 참관하고 있다.

최근,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연길시사법국과 손잡고 '법률지식인(法律明白人)' 및 결혼조정골간 양성반을 개최했다.

각 향진(가두) 부녀련합회 주석, 부분적 우수기층부녀련합회 간부, 혼인가정 분쟁조정 골간과 혼인가정지도작업실, 인민조정작업실 일군 등 55 명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

양성 과정은 래방 접수 기술과 실무, 여론 감시 및 처리 관리, 혼인가정 분쟁조정 기술과 경험, 혼인가정지도,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가정폭력 증거 수집 등 내용을 둘러싸고 참가자들에게 정책과 리론에 대한 해독, 실용적인 기교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경험교류를 진행했는데 강한 학습목적성을 갖췄다.

모의법정은 '리혼분쟁'사건으로 전개되였는데 진학가두 신양사회구역 부녀련합회 사업일군들이 관련 역할을 맡고 혼인가정의 가정폭력, 부부공동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가사보상금 문제 등 갈등을 둘러싸고 감정과 도리에 대한 변론으로 사건 법정심리중의 법정조사, 법정변론, 법정판결의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환원시켰다. 또한 증인의 시각을 통해 혼인가정지도작업실과 가사조사 기능을 전시했다.

양성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혼인가정편, 〈중화인민공화국반가정폭력법〉,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장법〉 그리고 민사소송사건 심리 절차 등에 대한 료해, 가사사건중의 가사보상, 가정교육지도령 등 새로운 지식에 대해 학습을 통해 부녀련합회 간부들로 하여금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되도록 몰입식 인도를 진행함과 아울러 혼인가정 분쟁 처리 능력을 제고시켰다.

한편 또 수강생들을 조직해 연길시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검찰작업구역과 12309 검찰봉사중심을 참관, 이를 통해 미성년자 강제보고제도, 사건 관련 미성년자 심리소통 절차, 법치교육 및 사법원조 등 업무에 대해 료해하고 검찰기관에 대한 직접 원스톱식 참관을 진행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검찰 실천 시간을 가졌다.

료해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연길시사법국과 련합하여 '법률지식인' 양성을 강화하고 '부녀 법률보급 농촌행' 활동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력량을 결집하고 부녀련합회의 온도를 높이며 부녀의 책임을 전시하게 된다.

/리전기자

유명 대학 양성반에 신청하려다 18 만원 사기당해!

절강 항주에 거주하고 있는 심선생은 고중 1 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 내부 문자시스템(校讯通)을 통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그녀는 국내 모 유명 대학교에서 조직한 양성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양성반에 참여하면 유명 대학에 보증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속히 양성료를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선생은 학급 선생님에게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선생님은 수업중이라 련락이 되지 않았다. 이때 '딸'은 또 문자를 보내와 신청이 곧 마감된다면서 빨리 계좌이체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되여 심선생은 아이에게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양성반 책임자 '장선생님'의 위챗을 추가한 후 전부 학과의 양성료를 보냈다. 그는 선후로 이 '선생님'에게 3 차례 계좌이체를 했는데 금액이 도합 18 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 '선생님'이 특정 유명 대학교 합격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서 30 만원을 더 요구하자 심선생은 그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현재 일부 돈은 되찾았고 사건은 진일보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은 "부모들은 평소 자녀와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료해를 깊이 하여 사기군들이 이런 빈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민넷 – 조문판

결혼 한달 만에 리혼, '납채'를 돌려줘야 하는가?

'납채(彩礼)'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례풍습으로 두 가정의 축복과 기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애정이나 혼인의 초심이 어긋날 경우, 납채는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각지에서 납채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조정의 방식으로 혼인재산분쟁사건을 해결했다.

두모와 석모는 소개로 알게 되였는데 얼마 안되여 번개식으로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쌍방은 결혼전에 만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결혼후 가정의 사소한 일로 모순이 많아 결혼한 지 한달도 안되여 두모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두모가 말없이 떠나자 석모와 석모 모친은 수차례 두모의 친정에 가서 납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납채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은 큰 분규가 생겼고 두모는 석모를 법에 기소하여 리혼을 요구했다. 석모는 두모에게 납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심리 과정에서 석모는 두 사람이 결혼후 동거한 지 한달도 안되였기에 전부의 납채 11 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 비용 1 만 5,000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모는 석모와 이미 결혼하여 한동안 함께 생활했고 부분적 납채는 석모의 혼수품 목걸이, 석모의 명품시계, 의복 등에 사용되였다며 3 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담당법관은 쌍방의 서술을 내심히 듣고는 직접 만나 내심하게 중재했다. 도리적 각도로부터 보면 두모와 석모에게 혼수는 물질교환일 뿐만 아니라 쌍방 가정간의 정감교류이기도 하다. 쌍방이 리성적으로 소통하여 평등과 존중의 토대 우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탐구하기를 바란다. 법관의 설득 끝에 두모와 석모는 한발자국씩 물러나서 납채 반환 문제에서 5 만원의 납채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혼인에서의 전통풍속인 납채는 남녀 쌍방 및 가정간의 정감을 표현하는 일종 방식이며 또한 혼인에 대한 기대와 축복이 깃들어있다. 그러나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산 취득은 반대해야 한다. 납채에 급부하는 특정된 목적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쌍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을 했으며 리혼 시 한쪽이 납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생활 기간이 짧고 납채 액수가 너무 큰 경우 법원은 납채의 실제 사용 및 혼수 상황에 따라 납채 액수, 공동생활과 출산 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과 결부해 반환 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실제적으로 함께 생활한 시간이 겨우 한달 밖에 안되였기에 안정된 공동생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리혼에 뚜렷한 과실이 없고 가정 수입에 비해 납채의 액수가 비교적 많기에 납채를 주는 것은 가정에 비교적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납채의 부분적 반환은 당사자 쌍방의 리익을 잘 균형시키고 정확한 혼인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문명하고 검소한 혼례풍속의 형성을 제창했다.

/리전기자

훈춘삼림공안, 야생 대마초 2 만 1,000 여그루 제거

▲ 경찰들이 대마를 운송차에 싣고 있다.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훈춘삼림공안분국은 마약 재배 금지와 마약 제거 사업 성과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원천 단속을 견지하며 각종 마약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삼림지역에 대한 순라 강도를 강화하여 불법재배 및 야생 마약원 식물을 전면적으로 조사, 정돈했다.

일전, 훈춘삼림공안분국 경신파출소 경찰은 관할구역을 순찰하던 중 대마초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식물이 잡초 속에 흩어져 불규칙적으로 자라고 있고 현장에는 개간이나 배양 등 인공 재배 흔적이 없음을 발견했다.

보고를 받은 훈춘삼림공안분국 형사수사대대는 현장에 출동해 마약원 식물 도감 분석을 통해 이 식물을 야생 대마로 확정했다. 그후 경찰들은 해당 구역내의 대마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일일이 동여맸으며 공안기관으로 운송하여 봉인하고 소각처리했다.

제거 행동이 끝난 후 경찰들은 훈춘시 경신진에서 마약금지 선전사업을 전개하고 대중들에게 마약의 위해성과 불법재배 마약원 식물의 법적 후과를 선전함으로써 대중의 마약금지 의식을 제고시키고 전민이 마약을 금지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오건기자

장백현 3 개 집법부문 주제당일 활동 진행

일전, 장백변경검사소 근무 1 대 당지부에서는 당창건 103 주년을 기념하고 중국공산당의 우량한 전통과 작풍을 계승, 발양하고저 장백해관 관광검사소당지부, 장백현인민법원당지부와 함께 '초심을 잊지 않고 손에 손잡고 새로운 정도에 오르자'를 주제로 한차례의 뜻깊은 주제당일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 과정에 그들은 우선 현인민법원의 문화 선전 벽보와 당건설활동실을 참관하고 당건설사업에서 이룩한 그들의 좋은 사업방법과 선진경험을 학습했으며 장백통상구홍색교양기지 열람실을 참관했다.

또한 좌담회를 열고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혁명선배들이 조국의 해방전쟁과 항일전쟁 시기 적들과 용감히 싸우면서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대해 높이 찬양했다.

이번 활동은 장백변경검사소 이민경찰들과 현인민법원의 법관들 그리고 장백해관 사업일군들에 대한 당성 교양을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그들의 사업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켜 상급 관련 부문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다.

/송성유(宋成瑀), 최창남

전자저울 부정행위 엄하게 단속

'무게를 속여 파는 현상'을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전자계량저울 부정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데 관한 공고(의견수렴고)〉를 발표하고 한달간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수렴고는 전자저울의 생산, 판매, 유지 보수, 사용 및 관리 등 관련 사항을 규범화하고 각 고리의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모든 당사자의 책임 및 관리와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생산자의 경우 형식승인 없이 전자저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비준된 형태를 변경하거나 불법개조를 위해 '뒤문'을 남겨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판매자의 경우 공장이름, 공장주소, 규격모델, 형식승인 표지 및 번호가 없거나 합격표기, 온전한 봉인 등 정보가 없는 전자저울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수리자의 경우 불법적으로 전자저울을 수리, 개조하거나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용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전자저울, 불합격 전자저울, 검증 주기를 초과한 전자저울, 합격표기가 검증되지 않고 '부정' 기능이 있는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전자저울을 리용하여 무게를 속여 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관리자의 경우 집중무역시장 주최자가 계량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공평저울을 설치하지 않으며 사용중인, 강제 검증에 해당하는 전자저울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는 등 계량 관리 책임을 리행하지 않는 것을 엄금한다.

/인민넷